

중대본 인사말씀

12. 9. (금) 08:30 IDC센터 재난안전상황실

기안: 서인석(평가담당관/3311)

검토: -

수정: -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인천에 방문해주신 김부겸 국무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시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중하게 인식하고
공직자와 방역 관계자들은 물론,
300만 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전체 인구 대비 백신 접종율은
1차 83.8%, 2차 81.2%, 3차 8.7%(12.9. 9시 기준)입니다.
우리 시는 백신접종이야말로 최선의 대응이라는 각오로
미접종자 맞춤형 접종 지원, 소아와 청소년에 대한 홍보,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 독려 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의 경우 사·군·구별 재택치료관리팀과
인천의료원 등 7개소의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며 관리중이며,
향후 2개소의 의료기관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병상은 총 1,094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75.9%가 가동 중입니다.(12.9. 0시 기준)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총 6개소, 1,096명이 동시 이용 가능하며,

현재 가동률은 64%, 701명(12.9. 0시 기준)입니다.

오는 22일 인천대 기숙사(390병상)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환자는 현재 40명(12.9. 0시 기준)입니다.
최초 확진환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허위 진술해
즉각적인 방역 체계 가동이 어렵긴 했지만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빠른 조치와 추적, 검사를 통해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폭넓은 역학조사와 접촉자 분류, 선제적 검사,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 추적조사 등을 통해
급격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고 선제적인 검사와 방역수칙 준수,
그리고 백신 접종이라는 기본방역지침에 충실한 것만이
지금의 확산을 저지하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기존 임시 선별검사소 11개소에 4개의 선별검사소를 추가해
더욱 촘촘한 검사체계를 세우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정부의 협조 하에
민간 수탁기관의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행정인력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백신 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최선의 보호 수단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비롯한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

백신 접종에 나서 주십시오.

선제적인 검사에도 협조해주기기 바랍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도, 혹은 어떤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가까운 검사 지점을 찾아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이미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신 공직자와 의료진 여러분,
병상 추가확보와 재택치료 체계 보완 및 개선, 특별방역 확대는
함께 노력해주고 계신 모든 국민들을 위해
우리가 마련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 인프라임을 명심해주십시오.

인천시는 중앙정부, 군·구, 의료기관 등과 혼연일체가 되어
지금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